

# 구룡포 과매기

오 장 수

jsohbb@naver.com

친한 친구 4명이 송년 오찬을 했다. 포항에 사는 김회장이 과매기를 가져왔다. 포항에서 아침에 자기 차 트렁크에 싣고 왔다. 오찬 테이블에 과매기를 펼쳤다. 점심 먹고 갈 때 또 한 상자씩 가져가서 집에서 먹으란다. 친구 4명에, 우리 먹을 것까지 적어도 5박스는 가져 왔다. 이래서 기차를 못 타고 차로 포항에서 서울까지 왔단다. 이런 열정과 장점으로 이 친구는 사업에 성공해서 갑부가 되었다.

나는 고향이 그 근처이나 과매기가 별로다. 선물이 종종 오면 구워서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는다. 풍치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친구의 성의가 고마워서 몇 개 먹었다. 봄동(배추 비슷하나 상추 크기만 한 야채)에 김도 얹고, 마늘, 매운 풋고추, 파 줄기에, 초고추장에 찍은 과매기를 싸서 먹는 것이 구룡포, 포항 사람들 지론이다. 요즘은 주문 배달이 많아, 받아서 펼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이 모든 것을 같이 포장해서 판단다. 심지어 소주나 막걸리도 같이 포장해 준단다.

법원 고위직, 4성 장군 대장, 오너 회장으로 구성된 이 친구 모임은 재미있다. 생각과 대화 내용이 다채롭다. 대통령과 검찰 총장을 보는 시각도 다르다. 법조인다운, 장군다운 기업가다운 의견으로 날

을 세우다가도 술 한잔에 우정을 녹인다. 어떤 것도 우정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 날인가 다음 날인가 TV 어느 프로에서 '구룡포 과매기'를 방영했다.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봤다. 또 참으로 한심했다. '대왕암과 만파식적' 들꽃 편지에 얘기한 대왕암 방송에 이어 또 한심한 방송이었다. 그 이후 또 어느 방송국에서 관련 프로를 했는데 '과매기'라고 철자까지 틀린 방송을 했다. 참으로 한심한……..

퐁치 껍질을 벗기고, 창자를 제거하고, 걸어서 말리기 좋게 손질하는 힘든 작업이 화면에 소개되었다. 극한 직업도 아닌 것 같았다.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 누님들은 다 이 작업들을 하면서 살아왔다. 외국인 여성 근로자도 나왔다. 말미에 사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 "실내에서 건조기 안에서 건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 세상에 과매기를 실내 건조기에서 건조하다니? 이것은 구룡포 과매기가 아니다. 그냥 기계로 건조한 퐁치일 뿐이다.'

그 사장이 실내 기계 건조기 건조의 이유를 설명

한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방송에 경악해서 잘 못 들었으나 아마도 이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외부는 일기가 고르지 못하다.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또 새들과 고양이 등 짐승들 피해도 우려되고. 그러나 이런 이유보다는 단시간에 많이 생산하려는 생산성, 채산성, 장삿속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말린 것은 구룡포 과매기가 아니다. 구룡포 과매기는 먼저 이 해역에서 잡은 쫄치를 써야 한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트럭이 싣고 온 쫄치 상자가 수입된 것이라고 했다. 도대체 이 방송은 구룡포 과매기 홍보인지? 폼파 방송인지? 분간이 안 되었다.

구룡포 인근 바닷가 겨울 기온, 바람, 비, 눈을 맞으며 얼었다 녹았다 건조된 쫄치가 구룡포 과매기가 되는 것이다. 여기 겨울 외부 기후 환경에 동결 건조(freeze drying)되어야 제맛을 내는 것이다. 예전에는 껍질 채로 창자까지 그대로 짚으로 엮어서, 바닷가에 막대기에 걸어서 말려서, 구룡포 과매기를 만들었다. 이것이 진짜다.

비슷한 것이 대관령 황태이다. 영광 굴비이다.

양구 시래기이다. 상주 꽃감이다. 대관령의 차디찬 눈보라에 한겨울 말려야 대관령 황태가 태어난다. 영광의 바람으로 건조해야 영광 굴비가 된다. 양구의 토양과 기후에 자란 무청을 양구의 겨울에 내 걸어야 양구 시래기가 된다. 상주에서 자란 감나무에서 탄 감의 껍질을 벗기고 상주의 기후에서 말려야 상주 꽃감이 된다.

실내 건조기, 공장에서 만들려면 서울 근교 땅값싼 곳이 최적지이다. 구태여 구룡포, 대관령, 영광, 양구, 상주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 프로를 보고 황태를, 조기를, 시래기를, 꽃감을 공장 건조기로 제조해서 대관령 황태, 영광 굴비, 양구 시래기, 상주 꽃감으로 시장에 팔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 TV 프로를 많이 안 봤기를 바랄 뿐이다. 이 프로로 인해서 구룡포 과매기의 이미지와 매출이 하락하지 않기를 빈다. 그 방송국과 담당 PD가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이상--